

丁克仁의 贈詩 研究

劉六禮*

〈차례〉

- I. 서론
- II. 生涯와 斥佛의 삶
- III. 贈詩
- IV. 맺음말

I. 서론

丁克仁(1481~1481)에 대한 실상을 지금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 이유는 정극인이 15세기에 생존하여 활동했던 분으로 지금부터 5백여 년 전의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극인에 대한 행적의 기록이 史書, 丁氏世譜, 行狀, 墓碣名, 家狀草 등이 전하고 있으며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그의 문집인 『不憂軒集』이 지금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생애나 삶의 철학 더 나아가서 시문에 대해서도 상당히 연구되어져야 한다.

정극인이 한국의 고전문학사에 특히 각광을 받은 것은 그가 국문시가에 관심을 가지고 <賞春曲>을 비롯해서 <不憂軒曲>, <不憂軒歌> 등 국문시가를 창작하여 현재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정극인이 창작하여 남긴 이 세 작품의 형태와 형식이 각자 다른 장르라는 점이다. 곧 <불우현곡>은 경기체가이고, <불우현가>는 시조의 형태이며, <상춘곡>은 가사이다. 그러므로 정극인은 국문학의 시조, 가사, 경기체가의 장르로 작품을 창작할 수 있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상춘곡>은 가사의 효시로 보는 작품으로 그 위상이나 가치가 다른 어떤 작품보다 크고 중요하다. 거의 같은 시기인 고려말에 생존했던 나옹화상의 <西往歌>가 가사의 효시작품¹⁾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더러 있으나 아직은 정극인의 <상춘곡>의 문학사적 위치는 가사에서 어느 작품보다 확고부동하다고 생각한다.

잠시 지적한 대로 정극인이 세운 우리 국문시가에 대한 업적은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는 국문시가만 창작한 것은 아니다. 국문시가 이외에 많은 한시문이 그의 문집인 『불우현집』에 전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국문시가를 창작한 작가로 한시문을 도외시한 사람은 없

* 조선대학교

1) 가사문학의 기원과 효시작품에 대한 관점은 아직 통일되어 있지 않다. 곧 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간단히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홍재휴는 신라말(742)로 발생시기를 잡고 『삼국유사』에 언급된 <散花歌>를 효시작품으로 보고 있다. 둘째 최강현은 고려 광종(958) 때로 보고, 이때 구전된 三類型의 가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셋째 나옹화상의 <西往歌>로 효시작품을 보고 그 발생시기를 고려말(1376)로 보고 있다. 이병기, 이상보, 정병욱, 박성의, 서원섭, 이동영, 홍홍구, 정재호, 조동일, 윤석창 등이 나옹화상 효시설을 주창하고 있다. 넷째, 장홍재는 조선조 초기(1392)로 보았다. 다섯째 김사엽, 조윤제, 이해순, 전규태 등은 성종(1481) 때 정극인의 <賞春曲>을 첫 작품으로 보고 있다. 여섯째 강전섭과 김수업은 이서의 <樂志歌>를 최초의 작품으로 보고 그 시기를 중종(1520) 때로 보고 있다(류연석, 『韓國歌辭文學史』, 국학자료원, 1994, 56쪽).

었을 것이다. 송순, 정철, 윤선도 등 국문시가의 대표적 작가로 알려진 사람들도 그들이 지은 한시문에 비하면 국문시가는 우선 양적으로 몇 십분의 일에 불과하다. 정극인도 이러한 한시문 위주의 벽을 뛰어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지금 『불우헌집』에 정극인 한시문은 운문인 한시가 약 50여 편이 넘고 산문으로 ‘疏, 誡, 記, 序, 書’ 등이 상당히 전하며 그중 특히 ‘疏’에 능했던 것으로 보아진다. 특히 그가 척불의 신념으로 올린 <太學請誅妖僧行乎疏>는 명문이고 그 내용이 뛰어난 글이다. 그러나 80년을 선비와 시인으로 살면서 그가 남긴 작품이 50~60편인 점은 우선 양적으로 너무 소략하다. 이 점은 정극인이 창작한 작품이 적었던 것이 아니라 창작된 작품이 모두 전승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정극인의 작품이 전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작품을 하나로 묶은 문집 편찬이 늦었기 때문이다. 잠시 『불우헌집』의 간행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정극인의 시문집인 『불우헌집』은 문집편찬의 부흥기인 18세기 때 편찬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이유는 『불우헌집』의 서두에 있는 <不憂軒集書>, <不憂軒集卷首序>, <朝散大夫司諫院正言致仕丁先生墓碣銘并序>, <有明朝鮮國故通政大夫行司諫院正言不憂軒丁公行狀>, <不憂軒家狀草> 등의 찬술 연대가 18세기 후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불우헌 정극인이 1481년에 세상을 떠난지 300년 뒤이다. 그러므로 『불우헌집』은 적어도 정극인이 타계한 뒤 300년 후에 간행되었다. 300년 후에 간행된 정극인의 문집에 그가 창작했던 작품 전부가 전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본다.

『불우헌집』의 머리에 있는 ‘卷首’의 글들에 대해서 그 찬술연대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문집의 가장 앞에 있는 <불우헌집서>의 찬술연대는 이 글의 말미에 黃景源이 1786년 정조 10년 4월에 찬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²⁾ 다음 글인 <불우헌집권수서>의 찬술과 연대는 이보다 1년 전인 1785년에 黃胤錫이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³⁾ 또한 <조선대부사간원정언치사정선생묘갈명병서>는 앞의 황경원이 지은 것으로 <불우헌집서>의 찬술연대와 같은 1786년이다.⁴⁾ 그리고 <유명조선국고통정대부행사간원정언불우헌정공행장>은 황윤석의 것으로 <불우헌집권수서>와 연대가 같은 1785년이다.⁵⁾ <불우헌가장초>는 찬술연대나 찬술자가 글의 말미에 빠져있다. 아마도 <불우헌가장초>는 문집을 편찬하면서 편찬한 사람들이 작성했을 것이다. 마지막 <不憂軒墓碣缺文>은 孫比長이 1483년에 지었으니 정극인이 타계한 뒤 2년을 지낸 뒤이다. 그러므로 정극인의 행장, 가장, 문집의 서문 등에서 손비장의 <불우헌묘갈결문>이 가장 연대가 빠르다. 그러므로 손비장의 <불우헌묘갈결문>이 정극인의 발자취를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글로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불우헌묘갈결문>은 손비장이 정극인이 타계한 직후에 묘표로 쓴 글이고, 나머지 글들은 사후 300년이 지나서 문집을 편찬할 때 찬술했다고 보여진다.

정극인의 행적에 대한 글을 찬술한 위의 황경원은 문집의 말미에 있는 약력 이상은 자세히

2) 崇禎紀元後三丙午四月日 輔國 崇祿大夫·判中樞府事 吏曹判書·知經筵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奎章閣檢校提學·五衛都總府都總管·世子左賓客黃景源撰(黃景源, 不憂軒集序, 不憂軒集 卷首)

3) 大統餘分三乙巳十一月日南至 箕一度四十四分 前行 世孫翊贊越松黃胤錫 敬書于吳東山雷室中(黃胤錫, 不憂軒集 卷首序, 不憂軒集 卷首)

4) 崇禎紀元後三丙午四月日 輔國崇祿大夫 判中樞府事 兼判義禁府事 吏曹判書 知經筵事 弘文館大提學 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奎章閣檢校提學·五衛都總府都總管·世子左賓客黃景源撰(黃景源, 朝散大夫 司諫院正言致仕丁先生墓碣銘并序, 不憂軒集 卷首)

5) 大統餘分三乙巳 我 聖上九年十一月日 禦侮將軍 前行 世孫翊衛司翊贊越松黃胤錫狀(黃胤錫, 有明朝鮮國故通政大夫行司諫院正言不憂軒丁公行狀, 不憂軒集 卷首)

알 수 없으나 황윤석과 손비장은 널리 알려진 선비요 인물이다. 이 중 황윤석은 자가 永叟고 호가 頤齋며 언어학자로 문집 『頤齋遺稿』가 전하며, 『華音方言字義解』와 『字母辨』은 오늘날 국어연구의 중요한 자료이다. 이 황윤석은 18세기에 선비들의 문집에 행장을 가장 많이 찬술한 사람 중 한 분이다. 손비장은 자가 永叔이고 호는 笠巖으로 文科重試에 갑과로 등방된 선비로 承旨, 行副護軍, 工曹參議 副提學에 올랐으며 대간의 임기 연장을 주창하는 時務四條를 올리기도 하였다. 서거정과 같이 『東國通鑑』도 지었던 인물이다.

정극인의 행적기술에 대한 참여자의 신분과 학문적 위상으로 보아 정극인의 선비와 시인으로서의 위상도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의 글을 통해서 정극인의 문집발간의 연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그 근거는 이미 예시한대로 1786년에 찬술한 황윤석의 글과 1786년에 기술된 황경원의 글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결정적인 증거는 <불우헌집권수>의 서두에 있다.

不憂軒丁公考終之三百有五年 而後人 始克謀行遺集 以胤錫添列彌甥 屬以校而序之自⁶⁾

이 글로 보면 황윤석은 丁門의 외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외손인 황윤석이 정극인의 문집을 간행할 때 ‘序’를 부탁받고 이 글을 찬술한 것이다. 그 해가 정극인이 타개한지 305년이다. 정극인은 1481년 곧 성종 12년 辛丑年 8월 16일에 태산(지금 정읍 태인)의 집에서 세상을 마쳤으니 향년 81세였다. 그러므로 타개한 1481년에 305년으로 더하면 곧 1786년으로 황윤석이 행장과 『불우헌집』 서를 찬술했던 해와 꼭 부합된다.

정극인의 문집인 『불우헌집』의 간행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한 이 유는 그의 문집 출간이 300년 뒤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정극인의 시문이 모두 전하려면 그의 시문의 원고는 305년 동안 보관 전송되어야 한다.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300여 년 동안에 국내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같은 외세에 의한 어려움 등 수 없는 난관을 우리는 겪었다. 그래서 정극인의 시문도 대부분 산일되고 현재 겨우 50여 편 전할 뿐으로 그의 작품은 더욱 소중하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정극인의 시문에 대해서 그 위상을 인식하고 학자들의 상당한 연구가 있었다. 그 동안 정극인 연구 중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 이상보, 김성기 등 10여 편이 넘는다.⁷⁾ 그러나 이 정극인의 시문에 대한 연구는 모두가 그의 국문시가에 대한 연구로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이번에 정극인의 국문시가 연구에서 판도 밖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의미에서 그의 한시문 연구의 한 진입을 생각하며 한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정극인의 문집에 수록된 한시들은 아직 작품의 작가에 대한 확신이 어려운 작품이 몇 편 있

6) 黃胤錫, 「不憂軒集卷首序」, 『不憂軒集』.

7) 정재호, 「불우헌고」, 『국문학』 4, 고려대, 1960.
 권영철, 「불우헌가곡연구」, 『국문학연구』 5, 효성여대, 1962.
 하성래, 「상춘곡의 문체소고」, 『한국언어문학』 12, 1972.
 이상보, 「정극인의 상춘곡연구」, 『명지어문학』 6, 1974.
 강진섭, 「상춘곡의 작자를 둘러싼 문제」, 『동방학지』 23·24합집, 1980.
 박영주, 「상춘곡의 작품구조와 자연관」, 『성대문학』 22,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1983.
 홍정표, 「상춘곡의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84.
 최강현, 「상춘곡의 지은이에 관하여 다시 논함」, 『학산 조종업박사 회갑기념논총』, 1990.
 박병환, 「상춘곡의 분석적 연구」, 『한국고전시가작품론』, 집문당, 1992.
 유육래, 「정극인의 불우헌곡 연구」, 『고시가연구』 10집, 2002.
 유육래, 「정극인의 국문시가 연구」, 조선대 석사학위논문, 2002.
 김성기, 「정극인의 불우헌가 연구」, 『시조학논총』, 2003.

다. 대부분 문집은 ‘卷一’은 문집의 주인이 지은 시가 게재되고 다음에 산문, 마지막이 교유하고 지냈던 분들의 시문 등의 순서로 구성된다. 그런데 정극인의 <불우헌집>에는 ‘卷一’의 시에 다른 사람의 시들도 끼여 있다. 그리고 ‘卷一’ 앞에 ‘卷首’를 두어 그 속에서, 가장, 행장, 묘갈명 등이 들어 있다. 이러한 <불우헌집>의 편집체계 때문에 정극인의 한시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그래서 필자는 정극인의 문집인 『불우헌집』에 실린 한시 중에서 지인들과 서로 주고 받았던 ‘贈詩’를 대상으로 그의 한시에 대한 특성과 미학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生涯와 斥佛의 삶

1. 생애

사람이 창작한 작품은 어느 시대의 어느 작품을 막론하고 그 작가의 삶 및 환경과의 상관성을 결코 배제할 수는 없다. 유교를 생활 철학으로 삼고 사는 사람의 작품에는 孔孟思想이 자연스럽게 들어 있고, 불교를 신조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의 작품에는 또한 불타가 추구한 삶의 觀이 들어 있기 마련이다. 물론 시대적 배경이나 삶의 조건들도 그 작가의 작품 창작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이 점은 時空을 초월해서 일관된 생각이기도 하다. 그래서 ‘시는 사회의 거울이다’는 문학의 모방설이 지금도 사람의 입에 회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극인의 시의 연구에 앞서 그의 생애와 삶의 觀을 살펴보고자 한 이유이다.

정극인은 1401년 8월 6일 태종 원년인 신사년에 豆毛浦의 집에서 태어났고, 자라서 관향인 영광으로 돌아왔다⁸⁾고 황윤석이 지은 공의 행장에 전한다. 정극인은 그의 관향이 전라남도 영광이므로 출생은 두모포에서 했으나 영광에서 성장했을 것이다. 정극인이 출생한 두모포는 지금 서울의 뚝섬 근방의 옥수동 근처로 보고 있다. 이곳은 당시에 경기도 광주에 해당된 지역으로 서울 도성의 근교이다. 정극인의 부친인 丁坤이 彰信校尉, 忠武侍衛司中領, 副司直을 역임했다고 하니 서울에 살았을 것이므로 정극인은 두모포에서 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전라도 영광의 토박이 향토학자인 이기태는 이 두모포가 광주의 두모포가 아니고 영광의 어느 해안지역으로 주장한 바 있다.⁹⁾

정극인은 자가 可宅이고 아호는 不憂軒이며 또한 茶軒, 茶角으로도 불렸다. 정극인의 원조는 唐의 丁德盛이며 고려 고종의 명신인 晉(璿)이 5대조이다. 고조는 時胤이고, 증조는 靈城君으로 작호를 받은 光祿大夫 知都僉議使司事에 이른 贊이며, 조부는 判典農寺事兼知經筵事를 지낸 光起이다. 부친은 언급했던 대로 忠武侍衛司中領, 副司直을 지냈던 坤이며 어머니는 開城少尹 安挺의 딸인 竹山安氏이다. 정극인은 尼山縣監 殷의 딸인 九臯林氏와 결혼하여 2남 6녀를 낳았다. 정극인이 고향인 영광을 등지고 정읍의 태인(태산)에서 생애를 보냈던 것은 구고안씨가 살았던 처가로 이주했기 때문이다. 정극인은 자손이 8남매 이외에 서자 曰孫이 있다.¹⁰⁾

8) 惠宗建文三年我太宗元年辛巳八月初六日 生豆毛浦里第 長歸貫鄉(黃胤錫, 有明朝鮮國故通政大夫行司諫院正言不憂軒丁公行狀, 不憂軒集 卷首) 靈光丁氏族譜, 十卷之一.

9) 金成基, 「丁克仁의 <不憂軒歌>에 나타난 時調性 研究」, 『時調學論叢』 第19輯, 韓國時調學會, 156쪽.

10) 撰者未詳, 不憂軒家狀草, 『不憂軒集』, 不憂軒集 卷首. 『靈光丁氏族譜』 卷十之一.

정극인의 修己나 사승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록을 찾기 어려우나 학통은 野隱 吉再→江湖 金淑滋의 맥을 이은 것으로 전해오고 있다.¹¹⁾ 그는 세종 11년에 생원시에 합격하여 태학에 유학하였다. 또한 정극인은 30세 되던 1429년 세종 때 癸酉文科에 합격하여 태학에서 공부하였다. 이 때에 金禮蒙, 金吉通, 具致寬, 朴仲孫, 姜老, 辛碩祖 등과 교유했고 黃喜와도 만났다. 정극인은 1473년에 行乎를 탄핵하는 <太學請誅妖僧行乎>를 올려 세종의 노여움을 사고 낙향하였다. 문종 원년 1451년에 ‘학문이 뛰어나고 늙도록 과거에 급제를 못한 덕망 있는 선비’를 추천하라는 교지가 내렸다. 이 때 이조, 예조, 성균관이 공동으로 정극인을 추천하여 從仕郎으로 廣興倉副丞이 되었다. 정극인의 환로생활은 성종 원년 70세로 물러났고, 그 뒤 태인에서 시문의 창작과 풍류에 탐닉했다. 정극인은 향민과 후학의 지도에 열성이었다. 한 예로 1475년 태인의 무성리에서 洞中鄉飲酒禮를 만들어 향민의 선도에 앞장섰다. 이 모임에 마을 향민은 모두 동참하여 爭訟하는 일이 없어졌으며 또한 예의를 숭상하게 되었다. 이 모임이 泰仁古賢洞鄉約의 시초이다. 정극인은 1472년에 성종의 聖壽無疆을 기원하기 위해서 고려 때 <翰林別曲>을 본따서 <不憂軒曲>을 지었다. 80세에 三品官을 하사받고 감읍하여 서울에 올라가 성종에게 <時弊數條>를 올렸다. 정극인은 81세 되던 1481년에 8월 6일에 타계하였다. 그의 묘는 지금 전북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죽효동 은석산 임좌방에 있다. 또한 정극인은 대원군의 서원훼철 때도 보존되었던 무성서원에 孤雲 崔致遠과 함께 배향되어 있다.¹²⁾ 정극인의 삶은 충분한 修己와 자질에 비해서 벼슬도 높지 않았고 환로생활도 길지 않았던 처사요 야인의 삶을 살았다. 그는 야인으로 태인의 무성리에서 80의 긴 생애를 누구도 닦하지 않으며 이웃을 사랑하고 임금과 나라에 감사하면서 일생을 보냈다. 한편 정극인은 <불우헌가>, <불우헌곡>, <상춘곡>과 같은 국문시가도 지어 즐기고 선비의 본분인 유학의 진작에 힘썼으며, 시인으로서 한시문도 창작하고 동민들이 참여하는 洞中鄉飲酒禮를 만들어 후진과 이웃에게 법도를 가르치며 살다간 靑鶴 같은 깨끗한 인물이다.

이바 니웃드라 山水 求景 가자스라
 踏靑으란 오날 하고 浴沂란 來日 하세
 아참에 採山하고 나조해 釣水하세
 갓 꺾어 닉은 술을 葛巾으로 뺏타 노코
 곳나모 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라
 <賞春曲>¹³⁾

이 <상춘곡>의 주인이 드러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 정극인이요 그의 생애인 것이다. 정극인은 벼슬이 높지 않았으나 자족한 선비로 살았으며 특히 그의 시문학은 한국 문학에 큰 영향을 끼치었다.

2. 斥佛思想

11) 黃胤錫, 『不憂軒挺公行狀』, 『不憂軒集』 卷首.
 『靈光丁氏族譜』 卷十之一.

12) 上同.
 金成基, 위의 논문.

13) 『不憂軒集』 卷二 歌曲.

필자의 시각으로 정극인은 극단적인 척불사상을 견지하고 살았던 인물로 생각된다. 그의 극단적인 척불사상이 어떤 동기에서 비롯되었는지 확실하지는 않다. 그러나 정극인의 시와 문속에 불승을 찬양하거나 불타를 존숭하고 인정하는 글이 거의 없다. 오직 여승을 찬미한 <尼姑吟寄古阜君伯>이 한 수 있을 뿐이다. 이 점만으로도 정극인은 불교를 배척했던 인물이다. 물론 이 정극인의 생존시기는 고려를 누르고 이씨조선이 일어났던 시대로 국시가 불교에서 유학으로 바뀌었던 때로 崇儒斥佛思想이 사회를 지배했던 시기이다. 그러나 정극인은 시류를 좇는 단순한 척불사상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일관된 삶의 길로 써 배불의 입장에 섰던 인물이다.

그의 척불에 대한 사상은 성균관에서 생원인 유생으로 있으면서 당시 임금이었다던 세종에게 올린 <太學請誅行乎疏>에 잘 드러나 있다. 정극인은 1437년 세종 19년에 요승 行乎의 축출을 상소한 <태학청주행호소>를 올렸다. 이 상소문은 孟子의 <正人心息邪說>을 인용하여 흥천사의 불승 행호를 벨 것을 주창한 글로 2천 3백 여 글에 달하는 極諫의 상소문이다. 이 상소 사건으로 정극인은 세종의 노여움을 크게 사게 되어 死議에까지 부치려 하였으나 다행히 황희의 도움으로 구명되었다. 이 상소 사건으로 정극인은 태학생할에서 물러나 낙향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환로의 길을 접해야 했다.¹⁴⁾ 조선조 세종은 역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성군으로 신하를 사랑하고 정당한 言路를 막고 살지 않았던 분이다. 그 세종의 격한 노여움만으로도 정극인의 <태학청주행호소>는 다소 지나쳤다는 생각이다. 이 글에서 상소의 대상이 된 행호의 잘못은 고작 백성의 고혈을 짜서 흥천사를 중창하려 했고, 중의 신분으로 채색옷을 착용했던 점 정도이다.

<태학청주행호소>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극인의 불교에 대한 생각을 몇가지 예를 들어 간략히 알아보려고 한다. 정극인은 섭렵해 보니 佛氏는 우선 정도가 아닌 이단으로 그 해는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소의 서두에서 기술하고 있다.

불씨의 해는 한가지 단서만이 아니니, 부모를 무시하고 군부를 무시하여 인심을 허물고 강상을 멸절하므로 이를 물리친 뒤에야 학문을 흥기시킬 수 있으며, 하는 일없이 놀고먹으며 부세를 내지 않고 백성의 재산을 줌먹으므로 이를 씻어낸 후에야 백성을 이롭게 할 수 있다.¹⁵⁾

이 소에서 정극인은 불교가 부모와 임금을 무시하고, 강상을 무너뜨리고 백성의 재산을 줌먹으므로 이 불씨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불교가 부모와 임금을 무시한 실증적인 근거를 내세우지 않았으며, 강상을 멸절한 근거도 없다. 다시 말하면 정극인의 불교관은 이유가 있기보다는 불교가 유교의 이단이라는 점에서의 발상된 것으로 보인다.

신 등이 또 듣건데, 전조의 말엽에 나옹이라는 중이 寂滅의 가르침으로써 어리석은 무리들을 미혹시켰는데, 당시에 그를 떠받들어 생불이라 지목했고 千乘의 존귀함을 굽혀서 필부의 천한 이에게 절하였으니 나라의 형세가 장차 기울고 우리 유도가 점차 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도가 있는 선비가 그 뿌리를 끊은 덕분에 마침내 스스로 죽게 하였으니, 참으로 세도가 쇠한 시대의 한 가지 큰 다행이었습니다.¹⁶⁾

14) 김성기, 앞의 논문, 157쪽.

15) 夫佛氏之害 固非一端 無父無君 毀人心滅綱常 闢之而後 可以興學也 遊手遊食 逃賦稅蠹民財 汰之而後 可以利民也(太學請誅妖僧行乎疏, 『不憂軒集』 卷二 文)

16) 臣等又聞前朝之季 有僧懶翁 以寂滅之教惑愚庸之背當時推戴目爲生佛至屈千乘之尊枉拜匹夫之賤 而國勢將傾 吾道浸衰 幸賴有道之士 絕其根株 竟使自誠衰世之一大幸也(上同)

정극인이 불승인 懶翁(1320~1376)을 공격한 글이다. 한국시문학사에서 가사문학의 효시인 <西往歌>의 작가로 널리 알려진 나옹은 속성이 牙이고 호는 懶翁 또는 江月軒으로 고려말 指空, 無學과 함께 三大和尚으로 호칭된 大德의 불승이다. 여주의 신륵사에서 나옹이 타계 하자 유학자 牧隱 李穡도 碑文을 지어 그를 찬했을 정도의 나옹을 가리켜서 백성들을 미혹 시킨 주범으로 몰아세운 글이다. 더구나 나옹은 정극인보다 100여 년 전의 인물로 이미 타계한 사람이다.

청정과 과욕은 부처의 가르침인즉 행호로서는 명산에 들어가 고요한 방에 앉아서 납의를 입고 음식을 끊어 그 도를 밝히는 것이 곧 그 일일 것인데, 그 어찌 채색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여염 가운데서 활개 칠 수 있겠습니까. 그 행호가 윤리를 멸절시키는 도로써 사람들을 혼도하고 이끌어서 풍속을 바꾸니, 신은 몇 년 뒤에는 온 나라 사람들이 군부를 무시하는 가르침에 빠져서 모두 머리를 깎은 무리가 되어 인류가 멸하게 되거나 앓을까 두렵습니다. 지금 보아하니, 영선하는 승도들로서 새로이 도첩을 받은 자들이 한 해에 거의 수만 명에 이른즉, 인류가 멸할 조짐이 이에 드러났습니다. 이는 필시 이 중이 불러들인 일임이 분명합니다. 전조의 말기에는 오히려 나옹을 베는 것으로써 요망하고 더러운 기운을 씻었는데, 더구나 우리 성상께 있어서 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사특함을 물리침에는 의심하지 마시고 악을 제거함에는 근본을 끊기에 힘쓰시되 해당 관청에 명하여 행호 한 중의 머리를 베어 길이 사특하고 망녕된 근본을 끊는다면, 국가에 매우 다행일 것입니다.¹⁷⁾

불승으로써 행호의 작폐에 대한 죄목의 내용이다. 정극인의 주장은 행호가 명산의 깊은 도량에서 납의를 걸치고 도를 이루는 것이 불자의 본분인데, 이를 망각하고 세속의 여염을 드나들며 값비싼 채색옷을 걸치고 활개치는 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윤리를 멸절시키고 풍속을 바꾸려 하며 많은 사람들을 불가로 출가하도록 이끌어 인류를 멸하게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호의 머리를 베어 화근의 뿌리를 미리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행호는 더욱 지난날 못된 일을 자행했던 나옹의 뒤를 이어서 자라는 뿌리라는 점도 행호가 죽어야 할 이유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호의 죄목으로 ‘斷行乎一僧頭’이라고 극간의 소를 올리는 것은 人本을 중시하는 유학의 입장에서도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정극인은 척불사상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功名도 날 피우고 富貴도 날 피우니 淸風明月 外에 었던 벗이 잇사울고 簞瓢 陋巷에 훗튼 혜음 아니하내 아모타 百年行樂이 이만한달 었더하리’ 이러한 <상춘곡>에서의 생활 태도가 진정한 정극인이 살았던 삶의 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Ⅲ. 贈詩

1. 贈詩의 意味

17) 況淸淨寡慾 佛氏之教 則爲行乎者 入名山坐靜室 衣衲食 以明其道 乃其事也 何可服彩服食精食 誇耀閭里哉 彼以滅倫絕理之道 薰陶援引 移風易俗 臣恐數年之後 舉國之人 淪於無父無君之教 盡爲髡首之道 而人類滅矣 今觀營繕僧徒 新受度牒 一滅之內 幾至數萬 則人類之滅 已兆矣是未 必不自此僧召之也 唐前朝衰季 尙能誅懶翁 以洗妖穢 況我聖上 乎 伏願殿下去邪勿疑 除惡無本 下令攸司 斷行乎一僧頭 永絕邪妄之根 則國家幸甚 上同).

국문시가의 대가인 송순, 정철, 윤선도 등도 그들의 시문은 한시문이 주이고 남긴 작품도 수 백수가 넘게 전한다. 그런데 정극인의 한시문은 100편도 못된 실정이다. 작품이 많지 않는 이유는 앞에서 지적한 대로 내외의 환경 때문에 전승이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남아 있는 전한 작품들도 그 내용과 주제 면에서 상당히 다양하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정극인의 한시 연구의 시작이라는 시점에서 그의 증시에 대한 실상을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증시가의 일반적인 개념을 정리하고 정극인의 정시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증시’라는 용어의 개념이나 그 의미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정리한 글이 뚜렷이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지금 학계에서 확실하게 인정받고 있는 용어도 물론 아니다. 다만 한시문을 연구한 학자들 간에 잠정적으로 막연하게 허용되고, ‘贈’이라는 한자가 뜻하는 ‘누구에게 보내다’, ‘누구에게 주다’ 또는 ‘누구에게 바치다’는 뜻의 소박한 내용이 담긴 시라고 여기고 있는 정도의 용어이다.

이 용어는 한시의 갈래를 내용을 참고로 나누는 분류의 일환으로, 말하자면 자연시, 도덕시, 누정시, 만시, 애정시, 애국시, 교유시, 풍물시 등과 같은 용어 중의 하나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증시는 분명히 그 시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대상은 그 시인이 교유하고 정을 나누며 지냈거나 지내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물론 넓은 의미로 자기가 신봉하고 지내는 종교의 신이나 자기가 몸담고 살아가는 조국과 같은 비인격체도 증시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신이나 조국에 바치는 시는 일반적으로 獻詩의 범주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대상의 시는 증시와는 내용적으로 상당히 다른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증시는 현시와는 달리 이 세상에서 숨쉬고 사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는 시로 편지와 같은 다감한 시를 두고 증시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증시가 실제로 어떤 대상에게 직접 시를 지어서 보내거나 넘겨주는 작위를 반드시 동반한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곧 A가 B에게 시를 지어 직접 보낸 시만이 증시가 아니고, A가 B를 두고 그리워하고 생각하면서 지은 시도 증시의 범주에 넣어도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증시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주목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증시는 그 대상이 생명을 지닌 사람이어야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증시는 위에서 지적한 현시와는 그 개념이 상당히 다르다. 그리고 설사 사람에게 바치는 시라도 추도시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추도시나 현시는 시의 대상을 필요로 하는 점은 그 성격이 증시와 동질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추도시나 현시는 그 시의 창작에 대한 목적이나 의도가 깔려 있다. 반면에 증시는 어떤 목적이나 의무적인 의도에서 창작된 것이 아니고, 대상에 대한 그 시인의 그리움과 사랑의 자발적 용출에서 창작된 시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정극인의 증시도 이러한 개념과 의미에 부합한 시를 대상으로 삼아서 이야기하려는 것이다.¹⁸⁾

일반적으로 증시는 시의 제목에다 주로 ‘贈, 上, 呈(奉呈), 與, 奉, 寄, 白, 傳’의 글자가 들어 있는 시들이다. 이 한자들은 그 의미가 ‘준다, 올린다, 보낸다, 내리다, 전한다, 주다, 사뢰다, 바친다’의 뜻이 들어 있는 글자들이다. 곧 이러한 글자는 그 한자의 의미가 대상에로의 어떤 전달을 요하므로 개념상으로 보아서 증시에 속한다. 그러므로 누구나 한시에서 증시를 지을 때는 대체로 위와 같은 글자가 작품의 제목에 들어 있다. 또한 이러한 형식과 내용을 수용해서 창작된 시가 조선조의 한시 가운데 상당한 양을 차지한 증시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증시라는 개념의 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¹⁹⁾ 그리고 증시가 효용면에서 아주

18) 金成基, 『高峰의 贈詩 研究』, 『傳統과 現實』 第十號, 高峰學術院, 191~192쪽.

19) 上同, 191~192쪽.

주요한 사실의 하나는 이 시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 보내는 시이므로 이 증시를 통해서 그 시인이 살아가는 동안의 교유관계를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정극인의 증시도 이상과 같은 개념과 효용성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제명으로 보아서 정극인의 증시도 작품의 題銘에 ‘贈, 上, 呈, 與, 奉, 寄, 白, 傳’자가 들러 있어야 한 것은 당연하다.

2. 贈詩의 實相

정극인의 증시도 증시으로써 자격을 갖추려면 내용면에서는 교유하는 사람에게 정극인이 보내거나 바치는 시이고 형식면에서는 그 작품의 이름에 ‘贈, 上, 呈(奉呈), 與, 奉, 寄, 白, 傳’자가 들어 있어야 된다. 지금 정극인의 시문집인 『불우헌집』 중, 卷一의 시편에 있는 정극인의 시는 총 53편이고 그 중 작품에 증시는 모두 20편에 이른다. 이는 정극인의 『불우헌집』에 전하는 증시가 무려 38%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점은 정극인이 증시를 많이 창작한 것이라기보다 전하는 작품에서 증시가 많은 것이다..

정극인의 남은 작품에서 증시가 유독히 많은 이유는 『불우헌집』에 전하는 시의 원고가 정극인이 타계한 뒤 한 곳에 305년 동안 보관되어 온 것이 아니고 문집을 만들 때 원고를 수집하였다는 의미이다. 그 이유는 교유하는 상대에게 주고받은 내용의 증시는 그 작품을 보내는 사람과 받은 사람의 양쪽에 보관이 된다. 예를 들어 <寄金花軒楸山>이라는 증시는 처음 정극인과 花軒 金楸山의 두 집에 보관된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정극인의 가문에 보관된 원고가 산일 되었어도 김추산의 집 원고가 남아 있기 때문에 수집하여 문집에 수록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오랜 세월의 뒤에 문집이 간행되면 자연히 증시가 많다.

지금 『불우헌집』에 전하는 시로 증시에 사용된 ‘贈, 上, 呈, 與, 奉, 寄, 白, 傳’자가 들어 있는 증시는 다음과 같다.

- 0 寄金花軒楸山
- 0 寄朴承旨慶胤 仲孫
- * 寄茶角丈(辛碩祖)
- 0 次羅先生韻兼寄具相國栗甫致寬
- 0 又寄栗甫
- 0 寄丘崔楊四博士
- 0 寄府尹吉通
- * 寄丁教授(池三達)
- 0 寄羅州亞牧姜老少之
- 0 寄谷山大先生安仲毅
- 0 寄盆城宰
- 0 寄泰仁諸儒
- 0 尼姑吟寄古阜郡伯
- 0 寄李淳昌摠
- 0 寄順天府伯
- * 寄茶角年兄(金禮蒙)

- 0 戲呈張獻納繼弛
- 0 贈朴教授玄蒙
- * 奉呈不憂軒居士(申末舟)
- 0 寄鄭承旨而漢

위의 20편 시에서 ‘*’가 작품의 머리에 붙은 시는 내용이 증시이나 정극인의 작품이 아니다. 『불우헌집』에는 실려 있으나 <*寄茶角丈(신석조)>, <*寄丁教授(池三達)>, <*寄茶角年兄(金禮蒙)>, <*奉呈不憂軒居士(申末舟)>는 정극인의 작품이 아니고 신석조, 지삼달, 김예몽. 신말주가 정극인에게 올린 증시이다. 그러므로 지금 남아 전한 정극인의 증시는 총 16편이다.

정극인의 증시에 사용된 ‘주다, 보내다, 올리다’의 의미를 가진 한자로 ‘寄, 呈, 贈’ 세 글자만 사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 중 ‘呈’과 ‘贈’이 사용된 곳도 단 한번 씩 뿐이고 14편은 ‘寄’자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극인은 증시를 쓰면서 ‘寄’자만을 넣어서 증시를 창작한 것이다. 이 ‘寄’는 ‘부친다’는 의미로 같은 연배나 아래 사람에게 보낼 때 주로 쓰는 말이다. 정극인의 증시는 같은 연배나 아래 사람을 대상으로 주로 썼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정극인 증시 몇 편을 대상으로 그의 증시에 대한 실상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一人之下百官上	한 인군의 아래 백관의 위자리
居寵思危失靡他	충 가운데 위태함을 생각하여 맹세코 마음없었네
毫忽變生君所講	문득 소홀한 데서 변고가 생김은 그대가 익히 아는 터
須臾靜處起風破	잠시 고요한 곳에서 풍파가 일어나네
圍碁運智縱多籌	비둑 두는 지혜는 비록 수가 많으나
分外高官不必求	분수 밖의 높은 관직은 반드시 구할 것 없네
無褐無衣難卒歲	하찮은 의복이라도 없으면 겨울 넘기기 어려운데
誰將惠我禦冬裘	누가 나에게 추위 견딜 가죽옷을 줄 것인가
丹桂成窵五十三	대과에 급제하지 못한 채 선세 해
誨人滋味老猶貪	사람을 가르치는 재미 늙을수록 더하네
花朝月多自多興	꽃피는 아침 달 뜨는 저녁에 절로 흥취가 많으나
亥豕魯魚問或漸	비슷한 글자 분별 못해 간혹 부끄럽다네
天衢穆穆去無因	멀고 먼 한양에 갈 인연이 없어
高臥覺堂數故人	황당에 높이 누워 옛 벗을 헤아리네
慶胤相公何處去	경윤 상공은 어디로 갔는가
卽今聞計暗傷神	지금 부고를 들으며 남몰래 마음 상하네

<又寄栗甫>²⁰⁾

20) 『不憂軒集』 卷一 詩.

이 시는 마지막 연의 결구인 “卽今聞計暗傷神”으로 보아서 慶胤 朴仲孫(1412~1466)의 부음을 접하고 栗甫 具致寬에게 보내는 시로 이해된다. 박중손은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도승지에 이르렀고 세조를 도와 김종서를 제거한 공으로 부귀를 누렸으나 겨우 54세로 별세하였다. 그래서 一人之下 萬人之上의 자리에 있는 벼슬 栗甫 具致寬(14406~1470)에게 居寵思危失을 경계하는 시를 보낸 것이다. 구치관은 박중손과 같이 세조를 도와 그 덕으로 벼슬이 영의정에 올랐다. 1466년 세조 12년 같은 해에 박중손은 죽고 구치관은 영상이 되었다. 이 시가 구치관에게 전달되었는지 그 전달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벼슬살이에서 몸가짐을 경계할 것을 권하는 시이다.

시를 통해서 보면 정극인은 바둑 두는 지혜에 비록 수가 많은 법이나 분수 밖의 일은 높은 관직으로서 삼갈 것을 경계하고 있다. 작자인 정극인은 ‘亥와 豕’와 같은 비슷한 뜻의 글자도 구분하지 못하고 나이가 들도록 대과에도 오르지 못해 한양에 갈 인연조차 없음을 한탄하고도 있다. 그러나 시의 내용은 환로의 어려움과 儒者가 바르게 걸어가는 治人하는 자가 지녀야 할 修己에 각별히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다만 이 시에서 의심스러운 점은 ‘丹桂成窻五十三’의 시구로 보아 작자의 나이가 53세 때이므로 박중손이 타계한 해머리와 연계 지어 생각해 보면 연대가 다소 상이하다. 박중손이 죽고 능주 출신 구치관이 영의정에 오른 1466년은 정극인이 66세가 되던 해이기 때문이다. 벼슬한 자의 직분은 어디까지나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 경계를 벗인 구치관에게 전하는 증시이다.

杏壇當日好交歡 반궁에서 지내던 날 서로 즐겁게 사귀었으니
 盡是巍巍博士官 모두들 우뚝한 박사의 관직이었네
 仁壽副丞榮亦足 인수 부승도 영화가 또한 넉넉했으니
 不嫌身上誤儒冠 몸 위에 그릇 유관을 썼음을 꺼리지 않았네
 <寄丘崔楊鄭四博士>²¹⁾

위의 시 <寄丘崔楊鄭四博士>는 杏壇의 시절에 같이 공부했던 丘, 崔, 楊, 鄭의 네 博士에게 부친 증시이다. 杏壇은 공자가 제자에게 강의했던 장소를 지칭했던 말에서 유래된 말로 여기서는 성균관 곧 泮宮을 일컫는다. 반궁은 조선조 때 유생들이 공부하는 최고 학문수행의 장소로 지금의 대학에 해당된다. 정극인은 한때 이 반궁인 성균관에서 청운의 뜻을 품고 修己했던 유생이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지적한 대로 정극인은 太學(成均館)에서 공부할 때인 37세 때 젊은 혈기로 儒學의 本道를 지키고자 斥佛에 앞장섰다. 그 실천행이 세종에게 올린 <太學請誅妖僧行乎疏>이다. 불승 행호의 목을 베는 것이 유학을 진작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사건으로 정극인은 벼슬길을 접고 낙향하였다.

시의 대상인 된 丘, 崔, 楊, 鄭이 누구인지는 알기가 어려우나 이 중 ‘楊’은 1436년에 급제한 楊洵이다. 그 이유는 정극인의 <寄丘崔楊鄭四博士>에 답하는 양순의 답시가 지금 문집에 있기 때문이다. 그 시의 시명은 없고 ‘양순이 삼가 次韻’한다는 <拜次>이다. 다음의 시이다.

泮水當年上舍呼 반궁에서 지나던 날 상사라고 부르며
 侍共鉛槧豈爲勞 한 책상에 모시고 공부함이 어찌 수고로웠으리

21) 上同.

今承瓊韻誠多愧 오늘 아름다운 시를 받음에 참으로 부끄러움이 많네
秋菊春蘭上下高 추국 춘란이 위아래로 높기도 하구려
<拜次>

이 시의 轉句인 “今承瓊韻誠多愧”의 내용으로 보아서 양순은 정극인이 보낸 증시를 받은 것이 확실하다. 양순은 오래전 태학에서 모시고 공부했던 정극인으로부터 벼슬에 오른 축하를 받고 미안하고 부끄러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정극인 자신은 환로와 거리가 먼 사람이거나 옛날 성균관에서 같이 공부했던 벗들을 기리어 이 시를 지어서 보낸 것이다. 정극인은 <太學請誅妖僧行乎疏>를 지어 자신을 드러냈듯 바른 일을 위해서 호연한 의기를 가졌으나 한편 꼼꼼히 이웃과 벗들의 사정을 챙기는 다정한 인물이었음도 이 시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己酉年間司馬試 기유년간 사마시에
崑崙堂上幾英雄 높은 당상에 영웅이 몇이런가
議賢出宰完山府 조정의 현인이 전주 부윤으로 나오니
腰帶黃金耀榜中 허리에 찬 황금이 방 가운데 빛나네
<寄金府尹吉通>²²⁾

위의 시는 同榜에 올랐던 文平公 金吉通이 부윤에 인명 될 때 정극인이 축하와 안부를 겸해서 지어보낸 증시이다. 당시 정극인은 전주 教授職을 맡고 있을 때다. 김길통은 정극인과 같은 해에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김길통은 관향이 淸風으로 1432년 세종 14년에 乙科 제1인으로 급제하여 벼슬이 전라감사, 호조판서에 이르고 좌리공신에 들어 月川君에 봉작된 분으로 정극인의 벗이다. 조선조의 선비들은 위의 시들로 알 수 있듯이 산문의 서간보다 서로 시를 주고받으며 그 시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러한 시가 말하자면 증시인 것이다. 위의 시 <寄金府尹吉通>도 그러한 역할의 증시다. 정극인이 김길통에게 하고자 한 말을 시로 보내 것이다.

苦節一生內 평생 동안의 고절이여
難堪抱百憂 온갖 근심 품어 견디기 어렵네
茶瓶煙欲絕 차 달이는 솥에는 연기가 끊어지려 하고
草幕汗如流 초막에는 땀이 물 흐르듯
三業未能脫 삼업을 아직 벗지 못한 터에
六通何處修 육통을 어느 곳에서 닦으리
願言施大惠 원하노니 큰 은혜를 베풀어
普濟馱經牛 불경을 실은 소를 구제해 주었으면
<尼姑吟寄古阜郡伯>²³⁾

이 <尼姑吟寄古阜郡伯>의 소재가 된 여승은 평생 세속의 부귀와 거리가 멀고 三業(身業, 口

22) 上同.

23) 上同.

業, 意業)을 해탈하여 六通(天眼通, 天耳通, 他心通, 宿命通, 神足通, 漏盡通)에 이르고자 몸을 닦는 불자이다. 여승은 누추한 초막에서 불도의 정진에 땀이 물 흐르듯 하나 그 형편은 차를 달이는 술에서 연기조차 끊어지려 상황의 가난한 처지다. 정극인은 고생하는 尼姑에게 연민을 보내며 고을의 원님인 고부의 郡伯에게 돌봐주기를 청하는 편지와 같은 시이다.

이 <尼姑吟寄古阜郡伯>가 특별한 것은 불자에 대한 동정과 연민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본래 정극인은 격한 척불의 인물이었다. 그의 척불사상은 여러번 강조한 대로 行乎의 상소사건으로 이어져 그에게 환로의 길을 접게까지 했었다. 그러한 정극인이 비록 여승이라고는 하나 불자의 삶을 동정하고 연민의 마음을 표출시킨 것이다. 사람의 삶에 대한 태도는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변이되고 바뀌어 감을 짐작하게 하는 시이다. 앞에 소개한 3편의 증시보다 이 <尼姑吟寄古阜郡伯>은 단순하게 서로 말하고자 하는 뜻을 주고받는 데서 한 걸음 일탈하여 인간적인 고뇌와 사랑이 시속에 숨어 있고 연민의 정이 곱게 드러나 있는 좋은 작품이다.

정극인의 문집 간행이 타계한 3세기가 지난 뒤에 이루어졌으므로 작품이 겨우 50여 편 남짓 전하고 있다. 그 중 증시가 무려 16수에 이르고 있다. 정극인의 증시를 통해서 그의 삶을 살펴보면 젊은 시절에는 철저히 공맹을 지향하는 유자였다. 이와 같은 정극인의 유학에 대한 집착은 불가에 대한 배척으로 斥佛에 앞장서기도 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그의 인생관도 변하고 많은 것을 포용하는 대인의 품모로 바뀐다. 그 이유로 불자에 동정을 들 수 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여승의 처지를 고부의 군수에 알리어 도움을 청하는 <尼姑吟寄古阜郡伯>라는 시이다.

정극인의 증시의 형식적 특징은 일반적으로 증시에서 ‘보낸다’는 뜻을 나타낸 ‘贈, 上, 呈(奉呈), 與, 奉, 寄, 白, 傳’자의 다양한 형태의 사용을 지양하고 거의 ‘寄’자만을 동원해서 시를 쓰고 있다. 정극인의 증시로 ‘寄’자 이외에 사용된 것은 ‘贈’과 ‘呈’ 1회 씩 뿐이다. <獻呈張獻納繼弛>와 <贈朴教授玄蒙> 두 작품이다. 그러나 이 증시를 통해서 정극인의 交遊關係, 따뜻한 人間愛, 지향했던 삶의 觀을 알아볼 수 있다.

IV. 맺음말

조선조 초에 활동했던 정극인은 우선 경기체가인 <불우헌곡>, 시조인 <불우헌가>, 가사인 <상춘곡> 등을 다양한 장르로 창작하여 남긴 한국시가가사에서 가장 위상이 큰 시인이다. 특히 그의 <상춘곡>은 한국 가사문학에서 발아의 작품으로 인정되기도 한 중요한 작품이다. 그래서 그 동안 정극인의 시문학 연구는 그의 국문시가 연구로 거의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극인은 국문시가 외에도 많은 한시문을 창작하여 지금 전하고 있다. 정극인의 한시문 연구에 대한 지평을 연다는 의미에서 그의 증시를 연구하였다.

정극인의 『불우헌집』에 전한 한시 53편 중 20편의 증시가 들어 있다. 이 20편 중 4편은 신석조, 지삼달, 김예몽, 신말주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극인이 받은 증시고 나머지 16편이 그의 증시다. 정극인의 증시도 다른 사람들과 형식과 내용은 유사하다. 내용은 상대방에게 자기의 의사와 뜻을 전하고 형식은 제목에 ‘보내다, 바치다, 오리다’ 등에 해당된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극인은 증시를 쓰면서 ‘寄, 贈, 呈’ 등 세 글자만을 제목에 넣어서 작품을 쓰고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 정극인 증시의 내용을 통해서 그의 삶의 관이 변이 되어 가는 노정도 알아볼 수 있었다. 정극인은 한때 극단적인 崇儒斥佛의 사상을 가진 儒者였으나 뒤에는 불자에 대한 연민의 시도 썼던 사실로 보아 그의 삶의 관이 넓어지고 大人의 품성으로 바뀌어 간 점도 그의 증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참고 문헌

1. 자료

不憂軒集.

靈光郡誌編纂委員會, 靈光郡誌.

靈光丁氏族譜.

玉堂골鄉土文化史料緝.

井邑文化院, 新編井邑人物誌.

鄉土文化社, 井州市誌.

2. 단행본

姜銓燮, 『韓國古典文學研究』, 大王社, 1982.

金東旭, 『國文學概說』, 民衆書館, 1976.

金思燦, 『國文學史』, 正音社, 1956.

金錫夏, 『韓國文學史』, 新芽社, 1982.

류연석, 『韓國歌辭文學史』, 國학자료원, 1994.

서원섭, 『가사문학연구』, 형설출판사, 1991.

李秉岐·白鐵, 『國文學全史』, 新丘文化社, 1957.

靈光文化院附設 靈光鄉土史研究所, 『武靈三綱錄』, 靈光文化院, 1992.

정병욱, 『한국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2000.

3. 논문

金成基, 「高峰의 贈詩 研究」, 『전통과 현실』 第十號, 高峰學術院, 191~192쪽.

김성기, 「정극인의 불우헌가 연구」, 『시조학논총』, 2003.

김성기, 「정극인의 <不憂軒歌>에 나타난 時調性 研究」, 『時調學論叢』 第19輯, 韓國時調學會, 156쪽.

전경목, 「태인고현향약과 정극인」, 『태산선비문화학술대회요지서』, 우리문화진흥회, 2000.

유옥례, 「정극인의 불우헌곡 연구」, 『고시가연구』 10집, 2002.

유옥례, 「정극인의 국문시가 연구」, 조선대 석사학위논문, 2002.

<논문투고일 : 2004.6.29. 심사완료일 : 2004.7.31. 게재확정일 : 2004.8.13>

K C I

<Abstract>

A Study on the Jeong Geuk-In 's *Jeung-si*

Yoo, Yeok-rea

Bul-woo-hun Jeong Geuk-In was a man of letters in early Joseon period. He was particularly talented in creation of Chinese poetry. The < Bul-woo-hun-ga>, one of his verses, is handed down to us. As one of the Gyeong-gi-che-ga, the <Bul-woo-hun-gok> is presented by him. And <Sang-chun-gok >, one of his words, is extremely valuable as the first Chinese words. That is to say, Chinese words was initially introduced by Jeong Geuk-In.

A lot of Chinese verses written by him are found in <Bul-woo-hun-jib>, a collection of verses. His Chinese verses include various genres such as *Jayeon-si*, *Doduk-si*, *Suchng-si* and *Jeung-si*. This study targets *Jeungsí*, which is written with a purpose for being dedicated to someone. Therefore, if it is examined, his personal relations, thoughts, philosophy and view of life can be identified. It was suggested that he did not make a distinction between Buddhism and Confucianism in that his main subjects of dedication were Confucian scholars, friends, and particularly, monks.

Key words : Jeong Geuk-In, *Jeung-si*, *Gyeong-gi-che-ga*, *Bul-woo-hun -gok*, *Bul-woo-hun-jib*